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디엘로트루다

디엘로트루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1927.8.18

www.nestormakhno.info
아나키스트연대의 C.Necromancy 가번역함

kr.theanarchistlibrary.org

1927.8.18

차례

서문: 문제의본질	3
일부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 『답변』 에대한응답	5
(1) 아나키스트운동이허약했던원인	6
(2) 아나키스트적계급투쟁	7
(3) 이데올로기적관점에서의대중의지도문제	8
(4) 이행기개념	9
(5) 생산의문제	10
(6) 혁명의방어	11
(7) 아나키스트조직	13

중의현재심리상태는결과적으로가장쉬운, 가장적은저항이따르는과정을모든정파의선동가들이제시하는”준비된“방법에따르도록한다”고말이다.

『답변』 에대한분석을, 그놀라운저자들의말로마무리하도록하자. 그들은 스스로의무가치함과위선을다음과같은놀라운말로대변한다. “대중의창조적가능성에대해, 대중의자치적행동에대해, 이데올로기적지도가이가능성에얼마나큰위협인지에대해말해보자. 만약 『강령』 을믿는다면, 그사람은대중들이자기해방을위한길을찾을수없다고믿을뿐아니라, 그러한욕망조차없다고믿는것이다. 대중들이가장저항이적은길을찾는것이라바라보는것이다.”

이것이실제상황이라면, 아나키즘에있어서는상황이좋지않다. 이것이사실이라면, 아나키즘은대중을자기편으로억지로끌어들여야할테니까말이다. 『강령』 을어떻게든비난하기위하여, 이성과사실들에도불구하고, 『답변』 의저자들은결국저러한선언을하는것으로전락했다.

우리의앞선논의에서, 『답변』 저자들의계획이근본없고, 우리운동의비일관성의전형이라는것을충분히보였기를바란다. 그리고윤리적으로말하자면, 『답변』 은 **비방은어떻게하면되는지에대한좋은본보기**일뿐이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뒤범벅인 통합이 아니라 아나키스트이데올로기의 **분화**와 탐구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동질적인 운동 강령으로 묶어내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나키스트 운동을 노동 대중의 운동 안에서 재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답변』의 윤리적 **특징** 몇 가지를 언급하며 결론을 내리도록 하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강령』이 아니다. 『답변』은 그저 자들이 멋대로 오해하고 있는 입장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다. 『답변』에는 추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강령』의 입장 속에서 예수회적인 후퇴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조작한 후에, 그 입장에 반대한다. 그들의 손에서, 『강령』은 아나키스트 운동과 노동 계급에 대한 사악한 음모로 바뀌었다.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강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대표한다. “대중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조직의 구체적인 형태와 그 활동 태는, 가장 높은 곳에 **전위당** (총동맹), 약간 아래에 동맹이 이끄는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 더 아래에 반혁명에 대항하기 위한 기반으로 세워진 조직 (군대) 이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은 “경찰과 같은 정치적 폭력” 기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결국 이들은 아나키스트 총동맹이 지도하는 경찰 국가의 상을 그려 놓은 것이다.

이 모든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의 저자들이 『강령』을 읽었다면 『강령』이 함축하고 있는 사상이 **자본주의적 계급 사회에 대항하는 투쟁의 기간 동안** 아나키스트 세력의 조직을 건설해 대중들 사이에 아나키즘을 선전하고 그 투쟁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노동 대중이 자본주의 사회를 퇴치하는 그 순간, 노동 대중의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모든 사회·정치적 기능이 새로운 삶의 창조에 착수할 노동자와 농민들의 손에 넘어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아나키스트 조직과 총동맹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노동자와 농민들의 생산적인 조직으로 녹아들 것이다. 『강령』은 혁명이후 노동자와 농민의 역할을 다루는 〈건설의 문제〉라는 장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세계 아나키스트 연합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고의적인 누락이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은 노동 조합, 공장 위원회, 평의회 등 자치적 기구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답변』의 저자들에게 따르면, 이 시점에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당 같은 것이 등장할 것이다. 어딘가 위에서부터 구성되어, 노동 대중의 “상급” 조직과 “하부” 조직에, 군대에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비판 문건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독자에게 대진실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무책임함**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뿐이다.

아나키스트 운동이 취약해진 다른 이유들을 분석하면서, 『답변』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조사, 분석, 비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욕망도 없는 대

서문: 문제의 본질

『조직적 강령』이 촉발한 논쟁은 지금까지 주로 『강령』이 담고 있는 주장 또는 『강령』이 제안한 조직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부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비판자들 대부분은 『강령』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령』이 어째서 나왔는지, 그저 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강령의 정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최근 볼린 (Voline) 과 몇몇 아나키스트들이 강령에 대한 총체적 반박이라며 펴낸 『강령에 대한 답변』은, 그들이 그토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간을” 읽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강령에 대한 진부한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문제의 심장을 직격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답변』이 강령의 테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말하며, 강령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궤변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재외러시아 아나키스트 그룹 the Group of Russian Anarchists Abroad》은 이 반박 (일수도 있던 것) 에 매달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던 지점 몇 개를 발견해 내었다. 그와 동시에, 《그룹》은 『답변』의 정치적·이론적 무능함을 드러냈다.

아래의 논평은 그들의 답변을 검토한 것이다. 이것은 『강령』의 보론이나 부록이 아니다. 단지 『강령』의 테제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스트 조직에 관한 강령에 관심을 가지는 동료들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이 기회는 감사히 사용하겠다. 우리는 이것이 『강령』의 의미와 정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에게는 1917~1919 년 러시아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의 실패를 볼셰비키 당의 국가주의적 탄압 탓으로 돌리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류다. 볼셰비키의 탄압이 혁명 기간 동안 아나키스트 운동의 확산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다. 오히려 아나키스트 운동이 조직과 전술에 있어 보이는 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모호함과 우유부단함과 비효율이야말로 그 실패의 주요 원인들이었다.

아나키즘은 사회 혁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확고하고, 공고하고, 즉발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혁명을 수행하는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의 견들이었다. 아나키스트들은 공장들의 수용 요구했지만, 새로운 생산과 그 구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나키스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하는 코뮌주의 체제를 옹호했지만,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이원칙을적용할방법을만들지못했다. 이런식으로, 아나키즘은우리를 의심하는자들이이대원칙을우스꽝스러워보이게만들도록허용했다. (그저, 얼마나많은사기꾼들이혁명기간동안공동체자산을개인적으로가지기위한수단으로이원칙을이용했는지기억할수있을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노동자들의혁명적인행동에대해많은이야기를했지만, 대중들을그러한행동으로, 심지어그가까이로조차이끌지못했다. 아나키스트들은대중과그들의이데올로기사이의상호관계를조정할수없다는것을증명했다. 그들은대중들에게권위의굴레를떨쳐버리라고떠들었지만, 한편으로는혁명의이익을어떻게통합하고그것을방어할수있는지는떠들지않았다. 그들은다른많은문제와관련하여명확한의견과구체적인행동정책을가지고있지않았다. 그것이바로그들이대중들의활동으로부터멀어지게하고대중들을사회적, 역사적기능부전으로몰아넣은것이다.

이것이우리가러시아혁명에서아나키스트운동의실패요인으로바라보는것이다. 1905년부터 1917년까지의과정을살아낸러시아아나키스트로서우리는이에대해확신한다.

아나키즘의 **내적비효율성**은우리가아나키즘의성공을담보할수있는방식을고민하도록만들었다.

20 년이상의경험과혁명적행동, 20 년간의아나키스트대오에서시행해온노력, 그리고아나키즘이 **조직적인운동**으로서끊임없이실패해왔다는결과. 이모든것이하나의동질적인론, 정책, 전술에뿌리를둔새롭고포괄적인아나키스트조직의필요성을우리에게확신시켜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조직적강령』의전제다. 러시아혁명을직접경험하지는않았지만그에대하여조금이라도알고있는다른나라의아나키스트투사들이자국내아나키즘운동안의정세를주의깊게살펴본다면, 그들은러시아에서아나키즘이실패하게만든 **내적비효율성**이그들자신의대오에서동등하게만연하다는것을, 그리고이것이특히혁명의시기에아나키스트운동에치명적인위협이될것이라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그리고그때에서야그들은, 『조직적강령』이이상적으로,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아나키즘에있어서의중요한진일보였음을이해할것이다.

표트르아르시노프

신을, 헤안이넘치는진정한결작을써낸것이라하겠다. 그들은어찌감치우리가이것이이행기가아니라주장하는지분노한다. 노동자와농민생산조직에대한혁명군의중속이정확히어떻게이행기를구성하게되는지는불가사의한수수께끼이다. 노동대중의군대는그자체로종착점인것이아니다. 이군대는노동자와농민혁명을수행할수밖에없다. 결국, 군대에책임을물을수있는것은노동자와농민들뿐이며, 군대를지도해야하는것도노동자와농민들뿐이다. 『답변』의저자들에게따르면, 혁명군, 아니그저무장그룹이라말해도될이들은, 노동자와농민의조직에책임을지지않아도된다. 이들은독자적으로존재할것이며, 원하는대로싸울것이다. 어쩌면이렇게자신이들어온총구의방향과정반대의말을할정도로뻔뻔할수있는가!

(7) 아나키스트조직

이점에서도, 『답변』의저자들이가장열심인것은 『강령』을잘못표현하는일이다. 무엇보다도그들은집행위원회의개념을당중앙위원회, 즉명령을내리고법과명령을만드는위원회로호도한다. 정치를조금이라도아는사람이라면집행위원회와중앙위원회는전혀다른생각이라는것을잘알고있다. 집행위원회는아나키스트기구일수있다. 실제로, 그러한기구는많은아나키즘적조직, 아나키즘적조합주의조직에존재한다.

『답변』의저자들은동질적인이데올로기에기초한광범위한아나키스트조직이라는개념은거부하면서도, 모든아나키스트분파가하나의“단일한가족”으로모이는통합조직의개념은이야기한다. 그조직의설립을준비하기위해, 그들은모든쟁적인문제들을모든각도에서토론하고검토하는신문을모든나라에출판하여아나키스트들을중재하자고제안한다.

우리는이미이통합이라는개념에대한입장을설명했다. 그리고그것을반복하지는않을것이다. 그저, 아나키스트들사이의의견불일치는토론의장으로활동할정기간행물의부족따위에서비롯하는것이아님을짚고넘어가도록하겠다. 이토론의장은서로다른조류를한데모으지는못할것이고, 단지노동대중의마음을혼란스럽게만들뿐일것이다. 나아가, 스스로아나키스트라고자칭하는개인들이한아름있다해도, 이들이아나키스트인것은아니다. 이러한자들을(무언가를기반으로하여) “하나의가족”으로묶어내고, 그옹성거림을“아나키스트조직”이라고호칭하는것은단순히우스꽝스러운것일뿐아니라, 해롭게우스꽝스러운것이다. 만약불행하게도이런일이일어난다면, 아나키즘이노동대중의혁명적사회운동으로발전할가능성은사라질것이다.

우리에게필요한것은무차별적혼합이아니라전체아나키스트세력과조직들로부터선별된아나키즘적코뮌주의조직이다. 이것이야말로아나키스트운동의

노동자들은반혁명과의전투를위하여작전계획에있어서의단결과지휘체계의통일을확보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적들은최악의시기에최악의지점을타격할것이다.

역사가이에대한가장좋은증거다.

1. 모든인민봉기는군대가 지배계급에맹목적으로복무하는것을중단하고반란군들과운명을같이했을때성공적이었다.

2. 러시아혁명시기에, 무장세력을통합하고, 전체지역에영향을주는군사작전을수행할수있던대중운동만이신뢰를얻을수있었다. 마흐노 (Makhno) 동지를중심으로한반란운동이그러했다. 이러한필요를이해하지못한반란그룹은잘조직된적앞에서스러졌다. 러시아혁명의한복판에서이러한일은수백번도넘게일어났다.

3. 콜차크 (Kolchak), 데니킨 (Denikin), 유데니히 (Yudenich) 등이이끈러시아반혁명세력이실패한것역시그들이단일한작전계획과통합사령부를꾸리지못했기때문이었다. 그랬기때문에 (1918 년) 콜차크가카잔 Kazan 근교에서모스크바로행군하는동안데니킨은캅카스 Caucasus 에머물렀고, (1919 년) 콜차크가청산되었을때데니킨이모스크바에서포위당한것이다. (참고: 우리는콜차크와데니킨을결군사적, 사회적패배에이르게한파르티잔의투쟁에대하여말하는것이아니다.)

내전기간동안혁명반군은통합된작전계획과통일된지휘체계를다룰수있어야한다. 그러지못하면노동자와농민들은병법에매우정통한반혁명세력에의해패배할것이다. 『강령』은노동자가그러한방법론을활용하여야한다고말하는것과동시에, 모든군대는혁명에복무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군사조직의존재를내전기간에만한정해야한다고말한것역시물론이다. 일단전쟁이끝나면, 혁명군은더이상의**존재이유**가없기에서사라질것이다. 우리는『강령』에서혁명의방어를다루는전체장에서노동자가통합작전계획과통일지휘체계를가져야할필요성만을강조했다. 『강령』은혁명군의개념과방법론모두가내전상황에필요한전략으로만간주되어야하며, 결코아나키스트적인원칙이아님을강조하고있다. 제정신이박혀있고, 정직한누군가가, 이것을바탕으로강령의원칙이중앙집권적상비군의원칙이라물아붙이는것은당혹스러운일이다. 그리고『답변』의저자들께서는이렇게하신다. 그들은우리가연합/당의지시에따르는생산자조직에복종하는중앙집권적군대를창설하고자하는열망을가지고있다고말한다. 우리는아나키스트들이이견해가터무니없고일관성이없다는것을스스로이해할만큼통찰력이있다고믿는다. 『답변』은혁명의방어문제에대한유의미하고즉발적인해결책을제안하지않는다. 『답변』의저자들은『강령』에대한모욕들을늘어놓은뒤에, 혁명에있어서의군사적단결에대해무언가에대해중얼거렸고, 비록평상시처럼잘못표현하기는했지만, 평소처럼『강령』에반대했다.

하지만『강령』에의해선포된것처럼노동자의생산조직에혁명군이귀속되는것의필요성을점점하는것이아말로, 『답변』의저자들이진정으로놀라운정

일부러시아아나키스트들의『답변』에대한응답

1927 년 4 월의『답변』은《재외러시아아나키스트그룹》이『조직적강령』을비판하고반박하기위해출간되었다.

『답변』의저자들은단지『강령』의특정한사상에동의하지않는것이아니라총체적으로동의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들은『강령』이정확히“(본인들이)받아들일수없는기본적인원칙, 본질, 사고방식을담고있는것”이라고말한다. 그들은그것이아나키즘이아니라볼셰비즘이라고생각한다. 그들은볼셰비키와“강령주의자”의**이념적본질**이동일하다고말한다. 그들은“『강령』의저자들은다음의것들을필수불가결한것으로본다. **지도부의설립**, 그지도부를따르는군대와경찰직. 이것은본질적으로**이행기적인정치적·권위적인국가주의의도입**을의미한다”고말한다. 그리고『답변』에는이와유사한, 놀라운주장들이넘쳐나고있다.

우리는주장을하기전에그에적절한증거를제시하는것이저자의의무라고믿는다. 근거없는주장을하는이러한관행은아나키스트들을의심스러워보이게할것이다. 모든아나키스트들은이러한주장들에대해단호한입장을취해야한다.

앞으로의글에서우리는『답변』의저자들이그들의주장에어떠한근거를제시했는지를찾아볼것이다. 그리고이과정에서, 그들의주장의의미와가치를알려줄수있기를진심으로바란다.

『답변』의저자들은그들이“『강령』의일부근본적이고중요한테제들에총체적으로동의하지않는다”는선언으로글을시작한다. 하지만실제로, 그들이제시하는쟁점들은『강령』의조직과원칙에관한모든테제에대한것이다. 이의견의차이를설명하기위해, 그들은많은것을한다. 많은궤변을사용하고, 스스로의주장에반하는주장들을들이민다. 이는, 그들이『강령』에대해**선협적으로**적대적이지만, 『강령』이제시하고있는어떤문제에대해서도그들자신의명확한대안적견해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필연적으로발생한일이다. 그래서우리는그들을이해하기위해그들의주요한반대의견을바탕으로논의할것이다. 그러나그과정에서우리는더많은것을보게될것이다. 『답변』의저자들이『강령』의특정주장을반박하면서, 동시에같은주장을답습하고, 그것이자신의주장이라주장하며, 『강령』에대항하기위해『강령』을사용하는것으로귀결하는것을볼것이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 그들의 반대에 대한 가장 좋은 반론은 『강령』 그 자체이다. 그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의견은, 『강령』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정신과 조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답변』의 저자들이 그토록 반박하고자 했던 『강령』의 특정 지점들만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이다.

(1) 아나키스트 운동이 허약했던 원인

『강령』은 아나키스트 운동의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 운동 내 조직적 요소와 조직적 관계의 부재라고 바라보고, 이것이 아나키스트 운동을 “만성적인 무체계”의 상태로 몰아넣는다고 본다. 이와 동시에, 『강령』은 이러한 무체계가 몇몇 이데올로기적 단점들에 내재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단점들을 아나키즘과 무관한 소부르주아적 원칙들에서 바라본다. 우리 운동에 만연해 있는 무체계는 이데올로기적 혼란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혼란이라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강령』은 동일한 강령을 기반으로 하는 총체적 조직의 설립을 제시한다. 『강령』은 이를 통해 아나키스트들의 총체적 조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은 집단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로써 아나키즘을 그 이념적 순수성과 조직의 불충분함으로부터 해방하고, 동질적인 원칙으로 묶인 강력한 아나키스트 조직을 위한 길을 닦을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중들 속에서 아나키즘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강령』은 아나키즘의 다양한 분파들을 하나의 “부드럽게 단결한 가족”으로 통합하는 접근법은, 아나키즘 운동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답변』의 비판은 강령이 제시한 아나키스트 운동이 취약해진 원인에 대한 상을 완전히 부정한다. 그들은 이 원인이 “사회혁명의 개념에 관한, 폭력에 관한, 이행기에 관한, 조직에 관한 **우리의 전망에 기초한 몇 가지 생각의 혼란**”에서 비롯한다고 바라본다. 또한, 『답변』의 저자들은 아나키스트들이 서로 동의하지 않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요약하고 있다. 그들이 옳다면, 아나키스트들은 서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조직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론화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공약들을 지금까지 너무 자주 들어왔다. 『답변』의 저자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론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수백 번 짚어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실현하여 강령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아나키즘의 원칙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사회혁명의 이상, 폭력, 집단적 창조성, 독재, 조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아나키스트들 사이에 합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혁명, 폭력적 혁명, 조직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것이고, 그들만을 위하여 아나키즘

되지 않는다. 그들은 조정된 생산이라는 개념이 중앙집권화와 국가주의라며, 탈락 중앙적 생산을 옹호한다.

생산의 통합이라는 개념은 명확하다. 『강령』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는 수세대 간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국 하나의 거대한 작업장이라 바라본다. 그렇기에 사회는 모두의 것이며,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의 각 부문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분리될 수 없다. 각 부문은 분리된 실체로 생산하거나 존재할 수 없다. 작업장의 **통합**은 기술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장에는 단 하나의 통일되고 조정된 생산만이 존재할 수 있다. 생산은 노동자와 농민 생산단체가 정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이 계획은 사회 전체의 요구에 따라 입안되어야 한다. 그 공장의 생산물은 노동 사회 전체에 속하여야 한다. 그러한 생산이야말로 실로 사회주의적이다.

『답변』의 저자들이 생산의 탈중앙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생략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몇몇 독립적인 생산, 고립된 산업, 분리된 기업 집단, 심지어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의 제품을 생산하고 처분하는 분리된 공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답변』의 저자들은 탈중앙화된 생산이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방에 가입한 각 단위는 소규모 민간 기업 가일 것이기에 생산은 전 허사회주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소유의 분할에 기초하기에, 경쟁과 만목을 불러일으키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생산의 통합은 권위주의적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앙화된 생산이 아니다. 생산의 통합은 진정한 코뮌주의적 생산이다.

(6) 혁명의 방어

혁명의 방어의 문제에 관하여, 『강령』은 혁명을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생산, 공급, 토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강령』은 또한 이러한 해결이, 그 특권을 유지하거나 되찾기 위한 착취 계급이 촉발한 치열한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것은 필연적 귀결이다. 『강령』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군사 행동에 있어서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즉 작전 계획에 있어서의 단결과 지휘 체계의 통일”에 의존할 것이라고 본다. 『강령』은 노동 대중역시 이러한 투쟁의 방법의 지혜를 알아야 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생겨날 모든 무장 세력이 하나의 군대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방의 용군이 반혁명 세력에 맞선 독자적 투쟁을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혁명적 노동자와 농민의 군대가 반혁명적 학살의 전선에서 더 많은 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 않는다. 더욱이 그 원칙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노동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힘과 역량에 따라 복무해야지, 그들의 번덕에 따라서는 복무하라거나,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답변』 의 저자들은 다시금 이 문제를 제기하며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행기가 아니냐! 그들은 “모든 종류의 예외, 제한 또는 특권 없이, 그 양에 관계 없이, 모든 생산물에 대한 동등한 즐거움을 누릴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들이 원칙에서 반란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 적대할 방법을 모색하는 부르주아계급에게 먹이를 주어야만 하는지 여부는 그다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하지만 『강령』 의 노동에 대한 원칙에서 노동대중이 부르주아를 부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니, 그저 노동대중이 부르주아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같은 것이다. 그들이 이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하여 논의의 조차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혁명의 그날, 노동계급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급이 『답변』 의 저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부르주아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부드러운 보살핌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답변』 의 저자들이 그런 호의를 가지고 부르주아를 노동사회의 정직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답변』 의 저자들의 최고 걸작은 그 이후에 나온다. 그들이 『강령』 의 모든 입장을 반박하고, 『강령』 의 저자들을 부끄러운 불세비키라고 일축하고, 『강령』 이 이야기하는 건설적인 체계는 이행기적인 정치·경제적 측면의 국가라고 말한 뒤, 그들은 혁명이후의 아나키스트 사회의 대담한 윤곽을 보여준다.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강령』 이 이야기하는 사회와는 공통점이 없는, 그런 사회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혁명을 향한 창조적 노력은 “**아나키스트 사회의 구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 말이다. 이제 『강령』 을 보자. “사회혁명이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 다시 투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나 노동자가 토지, 생산수단, 사회적 기능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경우가 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완성해나가는 것이 코뮌주의 사회의 건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의 반대자들의 우뇌는 좌뇌가 행하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5) 생산의 문제

또한 『답변』 의 저자들은 생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강령』 의 어느 부분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강령』 이 이야기하는 **통합**되고 **조정**된 생산의 개념은 노동자들이 직접 선정한 기구가 생산을 지시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전혀는

운동의 역사를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것은 정말 순진한 행동이 될 뿐일 것이다. 누군가는 그들이 사회혁명의 이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폭력혁명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와중에 세 번째로 누군가와서,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 모든 상황들마다 “아나키즘의 원칙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인 론을 장만하는데 실패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바쿠닌 (Bakunin), 크로포트킨 (Kropotkin), 그리고 말라테스타 (Malatesta) 는 **아나키즘의 원칙**에 대해 충분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던가? 그 원칙에 입각한 여러 나라에서 아나키스트 운동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 운동들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아나키즘에 불명확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아나키스트 운동 내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나키스트적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liberal 경향과 개인주의적 일탈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안정적 기반의 확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즘 운동을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과 일탈을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의 일부인, 공개적인, 혹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 (그리고 『답변』 의 저자들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임이 분명하다) 은 이러한 숙청을 막아선다.

(2) 아나키스트적 계급투쟁

『강령』 은 “인간사회의 역사에서 계급투쟁은 언제나 사회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매우 분명히 선언한다. 이는 아나키즘은 계급투쟁의 토양 위에서, 탄압받은 노동자들의 심장에서 탄생하여 성장해왔다는 것을, 아나키즘은 탄압당한 대중들의 사회 **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키즘을 일반적인 인본주의적 문제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사회적, 역사적 오류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에서, 아나키즘은 전적으로, 그리고 불가분적으로, 노동계급과 함께 싸운다.

『답변』 의 저자들은 이 명확하고 정확한 언명을 “우리는 통합 synthesis 을만 들어야 하며, 아나키즘이 계급적 요소와 인본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선포하여야 한다”고 받아친다. 이것은 노동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자유주의자 liberal 들과 공통되는 견해이다. 그들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영구히 머뭇거리면서 경쟁계급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이용될 공통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분한 단 하나의 인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오로지 노동계급의 결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 부르주아지를 포함한 인간 전체의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관점은 전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비

극에서 어느편에도 서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계급투쟁과, 아나키즘과 무관하다.

(3) 이데올로기적관점에서의 대중의 지도문제

『답변』은 『강령』이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스스로 궁리해낸 권위주의적인 지도指導에 대한 상을 바탕으로 『강령』을 비판한다. 보다 넓게 말하자면, 『답변』내내 그 저자들은 불가사의한 『강령』에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바탕으로 『강령』이 아나키스트뿐 아니라, 감상적 국가주의자들마저 당혹스럽게 할 만한 무언가라고 호도하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는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추동은 그 조합들을 아나키스트 조직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바뀐다.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적용하려는 일반적인 혁명군사 전략의 방법론은 중앙집권적 국가 군대의 아이디어가 “된다.” 아나키스트 조직의 집행위원회라는 개념은 독재적인 중앙위원회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아마도 『답변』의 저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엔 너무나도 무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오도와 자의적 해석은 같은 결말을 낳는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사상적 관점에서 대중을 지도한다”는 표현에 경종을 울리는 척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든 무리되는지는 곧 보여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그저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여,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두려워하는 이상한 존재들이 아닌가? 대중을 “사상적” 관점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운동에 이정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투쟁과 요구들 내부에는 이러한 이정표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대중의 이정표가 비엔나 노동자의 혁명운동을 배반한 사회민주주의자 따위가 아닌, 아나키스트 사상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나키스트 사상이 대중운동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조직된 이데올로기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 사이에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이데올로기로 선전할 수 있는 아나키스트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자명한 것이어서, 오늘날 이 시점에, 아나키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해줘야 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답변』의 저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의 관점을 오도하고, 아나키스트 총동맹에 관한 온건명칭한 말들을 늘어놓은 뒤에, 아나키스트들이 경제조직 내에서 해야 할 일은 대중들에게 정신적,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아나키스트 조직이 대중들을 “사상적” 관점에서 실제로 돕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강령』을 모욕한 뒤 『강령』의 입장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사상적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영향과 도움을 준

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나키스트들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사적 형벌을 가하는 폭도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조력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대중들에게 행하는 모든 조언은 아나키스트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나키스트적인 조언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적 지원”은 사상적 관점에서 의 영향력 행사, 혹은 사상적 관점의 지도를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바쿠닌, 크로포트킨, 르클뤼 (Reclus), 말라테스타 등은 의심의 여지 없이 대중들의 이념적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간헐적인 영향력 행사만이 아닌, 영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공동의 이념으로 묶여 구성된 이들이 이념적으로 조정된 활동을 하는 조직을 통해 더 이상 옆길로 새거나 해소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답변』의 저자들이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지도가 권위주의적 지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해변을 늘어놓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혁명은 인민대중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혁명대중은 그 심장에서 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할 소수의 주도적 대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 아나키즘 지지자들이 그 소수가 되어야 진정한 사회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이행기 개념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행기”라는 단어를 인민의 삶에서 구체제 질서의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체계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노동대중의 온전한 해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이러한 이행기 과정을 부정한다.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노동대중이 스스로 자유롭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사회혁명을 옹호한다.

그 문제를 이 이상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답변』의 저자들은 『강령』에서 정반대의 것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들은 『강령』이 대체로, “(이행기에 관한) 사상을 아나키즘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근거로 제출한다. 『강령』은 노동계급에 적대적인 계급의 압력 (혹은 폭력) 이 노동자의 투쟁에 의하여 중단되는 시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답변』의 저자들은 이에 대하여, 그래서 그것이 왜 이행기가 아니냐고 묻는다. 다시 『강령』을 보자. 『강령』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의 원칙이 반란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혁명을 부수는 것 말고는 관심조차 없고 생산에 참여할 의지도 없는 반혁명적 적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원칙은 평등한 사회의 구성요소들 간의 분배의 평등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반혁명적 목적을 위해 사회를 떠난 자들에게는 전혀 적용되